

중국장회체력사연의소설과 그 대표작인 《삼국연의》의 예술적특징

부교수 오 명 수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유산을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과 문화정서교양에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우리 당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분석평가하고 해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는것입니다.》
(《김정일전집》 제3권 196페이지)

중국의 4대장회체소설을 비롯한 중세소설작품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옳게 분석평가하는것은 외국문학연구부문의 과학리론적토대를 강화하고 중국문학사과목의 교수내용을 풍부히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의 소설문학발전에서 중요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지는 4대장회체소설들은 그 창작소재와 서술방식에 따라 력사연의소설과 인물전기소설, 환상소설, 생활세태소설로 갈라볼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외국문학연구에서는 《삼국연의》,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을 비롯한 중세소설들을 모두 장회체소설이라는 한테두리안에서 취급하였으며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를 심화시키지 못하였다.

논문에서는 력사연의소설의 발생발전과 그 특징을 소개하고 그 대표작인 《삼국연의》의 예술적특징에 대하여 연구분석하려고 한다.

력사연의소설의 대표작인 《삼국연의》의 사상예술적특징에 대하여서는 이미 《중국문학사》를 비롯한 교과서와 참고서들에서 적지 않게 연구분석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밝힌 예술적특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2. 본 론

2.1. 중국장회체력사연의소설에 대한 리해

원나라말기부터 명나라시기(14-17세기)의 산문문학에서 대표적인 소설형식은 장회체소설이다. 장회체소설이란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회로 나누어 묘사하고 매개 회마다 그 회の内容을 압축한 제목을 단 소설로서 중세소설문학의 대표적인 소설형식이다.

이 시기에 장회체소설이 발전하게 된것은 우선 명나라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와 함께 문학창작실천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된것과 관련된다. 이 시기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높아진 사람들의 문화적요구를 반영하여 소설, 희곡을 비롯한 많은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러한 문학작품들은 그 인식교양적의의로 하여 광범한 인민들과 진보적문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였다.

또한 인쇄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하여 장회체소설의 창작과 보급은 보다 활발해지게 되었다.

장회체소설은 송나라와 원나라시기의 설화문학의 한 형식인 설창(이야기와 노래)문학에서 발생하였다.

장회체소설들은 발생초기에 역대 왕조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만을 반영(력사연의소설)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역사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생활을 반영함으로써 인물전기소설과 환상소설, 생활세대소설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그 형식도 계속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4언시구로 되었던 때 회의 제목은 8언시구로 발전하였으며 서정적색채가 짙은 문구로 다듬어졌다. 사회생활이 날을 따라 발전함에 따라 장회체소설의 내용도 날을 따라 풍부해졌으며 묘사도 더욱 섬세해졌다.

장회체소설은 중세산문문학의 가장 높은 발전단계를 이루며 근대소설문학발전의 토대로 되었다. 장회체소설의 발단으로 된것이 바로 장회체력사연의소설이다.

력사연의소설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우선 중세중국의 역사를 흥미있게 전하려는 작가들의 지향과 노력이다. 력사연의소설작가들은 력사적사실과 사건들에 예술적허구를 결합하여 역사를 보다 흥미진진하게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 요인은 또한 많은 력사저작들이 력사연의소설에 창작소재와 서술방식을 제공한것이다.

중국에는 력대 왕조마다 봉건국가가 편찬한 정사(봉건사회에서 왕조를 기본단위로 하여 공식적으로 편찬한 력사책 - 기전체)와 개별적문인들이 서술한 야사를 비롯한 적지 않은 력사기록들이 있었다.

기전체(본기, 렬전, 지, 년표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서술방식), 편년체(력을 년대순에 따라 기록하는 서술방식) 등과 같은 력사서술체제는 력사소설가들에게 있어서 창작소재를 처리 및 배치하고 소설의 서사구조를 구성하는데서 주요원칙으로 되었다. 작가들은 다만 작품의 내용에 따라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거나 몇가지 방식을 종합하면 그 작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력사연의소설의 구조와 규모를 확정할수 있었다.

그 요인은 또한 화본소설, 전기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이 력사연의소설의 창작과 인물형상창조에 풍부한 경험을 준것이다.

《서경잡기》, 《세설신어》를 비롯한 화본소설과 한무제, 수양제, 당현종, 양귀비를 비롯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서술한 전기소설은 모두 력사연의소설창작에 풍부한 소재와 창작경험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면 력사연의란 무엇이며 력사연의와 력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력사연의에서는 예술적허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중국의 중세소설리론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두가지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하나는 정사과의 견해이다. 그들은 력사연의소설은 역사를 통속화할수는 있으나 마땅히 력사적사실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명나라시기 문인 장대기는 《삼국지통속연의서》에서 력사연의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량에 있어서는 력사책처럼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다만 언어는 우아함과 통속성을 갖추는것과 함께 감화력이 있어야 하며 문체는 통속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나라시기에 와서 채원배는 《신렬국지》에서 《<렬국지>는 역사를 이것저것 라렬식으로 적어놓았기때문에 <렬국지>를 정사로 보아야지 소설계렬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

하였다.

정사파들은 력사연의가 력사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럼 력사연의와 력사는 무슨 차이가 있으며 왜 력사연의를 창작하였는가 하는것이다.

그들은 력사연의창작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우선 력사를 통속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력사연의의 정의는 력사를 통속화하는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사가 갖추지 못한 세부들을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즉 정사의 서술은 비교적 간략화되었고 력사연의는 그것을 더욱 상세하고 풍부하게 하여 정사에 보충적인 작용을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력사를 조리있게 서술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정사에 기록된 력사적사실이 비교적 분산되고 복잡하기때문이다.

정사파의 주장은 력사와 소설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혼탁되어있으며 정사파는 력사연의를 정사의 보급본으로 보면서 소설의 미학적특징을 홀시한것으로 하여 력사연의창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른 하나는 창작과의 견해이다. 그들은 문학창작의 각도에서 력사연의소설을 보면서 력사를 답습하여 쓰는것을 반대하고 예술적허구를 장려하였으며 력사소설의 미학적특징에 대해 강조하였다. 명나라의 문인들도 력사서적과 력사연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밝히었다.

명나라시기의 문학가였던 사조제는 소설의 예술적허구에 대해 긍정하고 허구와 사실이 절반씩이라는 논점을 제기하였다. 사조제는 력사연의소설창작에서 예술적허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술의 미학적양상에 눈길을 돌렸으며 미학적요구에 도달하면 그만이지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사파의 주장에 대한 배경으로서 문학작품과 력사의 차이를 명백히 갈라놓은것으로 된다. 그러나 사조제의 이 주장은 《비연외전》, 《천보유사》와 같은 소설작품과 《비파기》와 《서상기》와 같은 희곡작품들을 논한것으로서 력사연의소설과 기타 문학형식의 차이를 완전히 구별하지 못한것이였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전면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것이다.

명나라시기의 문학가인 원우령은 《수나라력사유문서》에서 정사는 진실을 전하므로 진실을 중시하여야 하며 력사연의는 기이한 사실을 전하므로 환상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선행한 리론보다 력사저작과 력사연의의 차이를 보다 명백히 하였다. 그는 예술적환상에는 예술창작과정에서의 허구, 파장, 상상 등을 포함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력사연의소설창작에서는 모든 력사를 다 기록할수 없으므로 력사적사실에만 의거할것이 아니라 작가의 예술창조에 의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앞선 시기의 사람들보다 큰 걸음을 내짚은것으로 된다. 원우령은 자기의 글에서 예술적허구가 력사소설창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밝혔지만 력사소설에서의 예술적허구의 한도문제, 력사소설과 기타소설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의 글에서는 력사연의소설의 고유한 예술적특징이 더욱 설득력있게 밝혀질수 없었다.

청나라시기의 문인인 김풍은 력사연의소설에 대한 더욱 과학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는것과 환상을 중시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에 대하여 너무 진실에 치우치거나 환상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만일 너무 환상에 치우치면 력사연의가 력사소설로서의 특징을 잃게 되고 일반적인 문학작품과의 차이가 없어져 진실감이 사라지게 될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너무 진실에 치우치면서 예술적허구를

배척하면 역사연의가 문학작품으로서의 예술적특징을 잃게 되며 따라서 역사저작과의 차이가 없어지고 예술적인 매력이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풍은 역사연의소설에서 허구와 사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탐구하였다. 그는 주요역사적사실과 역사인물들의 성격은 진실하게 형상되어야 하며 이야기줄거리에는 예술적허구를 적용할수 있다고 보았다.

중세중국문인들의 역사연의소설에 대한 견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수 있다.

첫째로, 역사저작과 역사연의소설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역사저작은 과학서적이고 역사연의소설은 예술작품이라는것이다. 과학은 진리성과 객관성을 요구하지만 예술은 예술적허구, 인물의 전형화원칙을 비롯한 예술창작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둘째로, 역사연의소설이 다른 소설과의 차이점은 역사연의소설의 주요역사적사실과 역사적인물들의 형상은 역사에 부합되어야 하며 허구에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연의소설이 아니라 일반소설이 되는것이다.

셋째로, 기본이야기줄거리가 역사적사실과 어긋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작가가 예술창작규범에 따라 예술적허구를 대담하게 적용하는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역사전기에 대하여 상세히 쓰고 왕조의 흥망성쇠와 전란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데 편중하며 뚜렷한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 통속화되어 알기 쉬운 소설을 가리켜 역사연의소설이라고 한다.

역사연의소설은 문인들의 창작과 민간이야기를 결합한것으로서 설창문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중국에서 설창문학은 당나라에서 기원되었으며 송나라와 원나라시기에는 매우 번성하였다. 이 시기 중들은 불교교리를 설교할 때 청중을 끌기 위하여 역사이야기들을 함께 해설하였다. 돈황석굴에서 발견한 많은 량의 문서가운데는 종교서적과 유교경전외에 일명 《변문》(당나라때 성행하던 설화 및 가창문학의 일종)이라고 하는 민간문학사본들도 있었다. 이야기와 노래를 결합한 이러한 《변문》에서는 이미 오자서, 왕소군 등에 대한 역사이야기를 설창문학으로 각색하였다. 역사소재의 《변문》들은 소설과 희곡창작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전한지전》, 《서한통속연의》를 비롯한 화본소설유산에는 일부 역사이야기들이 보존되어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설창대본과 설화대본들을 다 화본소설로 취급하고있으며 화본소설이라는 말도 이야기대본이라는데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원나라시기에 출판된 《전상설화5종》에는 《무왕의 주왕토벌설화》, 《칠국춘추설화》(후편), 《진나라의 룽국병합설화》, 《전한서설화》, 《삼국지설화》가 들어있다.

《삼국지설화》는 《전상설화5종》중에서 제일 중요한것으로서 《삼국연의》의 규모를 이미 초보적으로 갖추고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설창문학대본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이러한 작품들은 초기 역사연의소설의 원형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설화작품들을 기초로 한 역사연의소설들은 그 창작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역사연의소설작품들은 소재적측면에서 볼 때 역사저작들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민간이야기들과 전설을 많이 받아들이었다.

장회체력사연의소설 《삼국연의》는 오랜 역사적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일찌기 3국(위, 촉, 오)시기부터 민간에서 전설로 전해져오던 3국간의 전쟁이야기들은 송나라와 원

나라시기에 이르러 화본소설로 발전하였다. 원나라시기에 나온 화본소설인 《삼국지평화》는 삼국이야기를 기록한 최초의 작품으로서 《삼국연의》의 틀곽을 그려내었다. 그후 라관중은 력사가인 진수가 쓴 력사저작 《삼국지》와 그에 대한 배송지의 주석본에 기초하고 민간전설과 화본소설의 성과를 받아들여 장희체력사연의소설 《삼국연의》를 창작하였다.

둘째로, 력사연의소설작품들은 체계상에서 볼 때 설창대본에 있던 회와 절, 시구들을 받아들여 장희체소설로서의 특징을 형성하였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중세장편소설의 유일한 형식으로 되게 하였다.

셋째로, 력사연의소설의 문체를 창조한것이다. 언어구사에서 볼 때 화본소설은 반문언문, 반백화문으로 된 문체를 창조하여 그 경험을 력사연의소설에 넘겨주었다.

송나라와 원나라시기 설창문학이 번성하면서 중국의 희곡도 발전되고 성숙되어갔다. 원나라시기 희곡무대에서는 매우 많은 력사극과 력사이야기극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희곡작품들은 설창문학과 더불어 서로 추동하기도 하면서 력사적주제를 더 넓은 각도에서 개척하고 력사연의소설창작에 생기발랄한 민간창작의 예술적성과를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풍부하고 생동한 이야기줄거리와 인물형상을 제공해주었다.

결과 원나라말~명나라초기에 《삼국지통속연의》가 창작되었다. 이 력사연의는 력사저작처럼 문체와 언어구사가 까다롭지 않고 또 설창대본처럼 저속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이 력사를 리해하는데서 인식적가치를 가지고있어 광범한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이리하여 명나라 중엽부터는 문인들속에서 력사연의창작경쟁이 일어나고 출판업자들에 의해 대량출판되어 력사연의소설발전을 추동하였다.

넷째로, 력사연의소설작품들은 력사적인 사건과 이야기들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인민대중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보여주었다.

장희체력사연의소설 《삼국연의》(14세기 중국 원나라말-명나라초의 작가 라관중이 창작한 력사연의소설)는 한나라가 3국으로 분열되어 패권을 다투던 184-280년사이의 복잡한 력사적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봉건왕실내부의 알룩과 봉건군벌들의 피비린내나는 살륙전쟁의 죄악을 발가놓고 봉건사회의 암흑과 부패성을 폭로비판하였다.

또한 전란속에 피난을 다니는 백성들과 군대에 징집되어 봉건군벌들의 권력쟁탈을 위한 싸움속에서 희생물이 되는 군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전란속에서 시달리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보여주었다.

장희체력사연의소설 《동주렬국지》(청나라시기 작가 채원배가 쓴 력사연의소설)는 춘추전국시대의 시대상을 예술적으로 형상해냄으로써 봉건군주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폭로하고 이 시기 령토확장을 위한 전쟁으로 인하여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보여주었다.

장희체력사연의소설 《손방연의》(명나라시기 작가 오문소객이 쓴 력사연의소설)는 손빈과 방연의 형상을 통하여 손빈의 의리와 신의를 저버린 방연의 가련한 말로를 보여주었다.

전국시대에 손빈과 방연은 의형제를 맺고 함께 운몽산에 올라 귀곡대사한테서 함께 병법을 배우나 방연은 후에 먼저 산을 내려 위나라의 대원수로 승급하며 손빈의 재능을 질투하여 의형제의 의리를 저버리고 손빈을 속여 위나라로 데려다가 그에게 모반의 죄를 씌워 그의 무릎뼈를 도려내는 형벌을 준다. 후에 손빈은 제나라로 빠져나가 모사가 되어 방연을 복수한다.

이처럼 력사연의소설들이 취급하는 내용은 초기의 한나라말-삼국시기(《삼국연의》)

로부터 앞으로는 춘추시대, 뒤로는 봉건시대말기의 청나라시기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결국 매 왕조에 대한 력사연의소설들이 다 창작되었고 일부 왕조에 대해서는 여러부의 력사연의소설들이 창작되었으며 청나라 중엽에 와서는 그 수가 무려 60여부에 달하였다. 력사연의소설의 대표작으로는 《삼국연의》, 《동주렬국지》, 《손방연의》외에도 《당서지전통속연의》, 《수사유문》, 《수당연의》, 《서한연의》, 《설당연의전기》, 《남사연의》, 《북사연의》 등을 들수 있다.

2.2. 장회체력사연의소설 《삼국연의》의 예술적특징

장회체력사연의소설 《삼국연의》는 예술적기교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력사연의작품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되고있다.

《삼국연의》는 한나라말기 한령제시기인 184년부터 진무제시기인 280년까지의 총 97년에 달하는 력사를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모두 120회로 되어있으며 크게 세개 부분으로 가를수 있다. 첫번째 부분은 제1회부터 33회까지인데 대체로 한나라말기의 동란과 군벌들의 대결, 조조군벌집단의 강화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34회부터 85회까지인데 류비군벌집단의 강화와 삼국의 분립, 삼국의 패권다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세번째 부분은 86회부터 120회까지인데 삼국의 쇠퇴몰락과 사마염에 의한 통일, 서진왕조의 수립에 대해 서술하였다.

삼국시기의 실제한 력사기록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사건도 매우 복잡하였다. 이것은 력사사실과 예술적허구를 결합하는데서 적지 않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자기의 작품에서 축한을 중심으로 한 삼국의 대립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질서정연하게 이야기를 꾸며나갔다. 이야기줄거리에서 굴곡과 변화가 많으나 사건들이 서로 잘 맞물리고 이야기줄거리가 선명하며 기본적으로 완벽한 구성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력사소설들중에서는 보기 드문것이였다.

작품의 예술적특징은 첫째로, 여러가지 예술적수법들을 재치있게 활용하여 개성이 뚜렷한 인물형상들을 창조한것이다.

소설에는 거의 400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하여 매 인물들의 개성이 대체로 뚜렷하다.

우선 과장과 대비, 반복의 수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묘사수법에 품을 넣어 주요인물의 성격적특징을 두드러지게 하여 독자들에게 강렬하고도 선명한 인상을 안겨준것이다.

력사기록에서는 류비와 조조가 다같은 군벌할거세력이지만 작품에서는 류비를 어질고 너그러운 인물로, 조조는 간악하고 교활한 인물로 대비적으로 묘사하였다.

류비는 민심을 얻고 한나라황실을 일떠세우는것을 대의로 내세우고 조조와 대결한다. 그는 방통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나하고 수화상극인것이 조조요, 조조가 성급하게 하면 나는 너그럽게 하고 조조가 사나웁게 하면 나는 어질게 하고 조조가 간특하게 하면 나는 충성되게 해서 매사에 조조와 서로 반대가 되게 해야만 대사를 가히 이룰수 있는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조조만 리를 탐내서 신의를 잃는다면 이는 나로서 차마 못할 일이요.》 류비는 전란속에서도 형주의 백성을 데리고 피난을 가며 사천을 차지한 다음 백성들의 재산을 추호도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조는 《내가 천하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천하사람들이 나를 저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류비와 대결하면서도 그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깔본다. 《패군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무리로서 〈황숙〉이라 함부로 칭하고있으나 전혀 신의라고는 없는

자이니 이른바 밖은 군자이나 안은 소인이라 할 위인이지요.》

몇백년동안 조조와 제갈량 등의 인물들이 간교함과 지혜로움의 대명사로 된것은 소설이 독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은것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제갈량의 재능, 관우의 의리, 조조의 간교함, 장비의 성급함은 다 반복적인 강조와 여러차례의 과장의 수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작가는 중요인물을 등장시킬 때 항상 대비와 과장의 수법으로 그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

등장인물들이 한번 출현할 때 그들에게 자기의 성격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 관건적인 시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여 그들의 개성적인 측면을 과장하였다. 제갈량이 산에서 나오기 전에 사마휘, 서서 같은 인물들이 제갈량의 재능을 찬양하면서 류비에게 천거하는 이야기와 류비가 세번씩이나 제갈량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하여 공명의 지위를 매우 두드러지게 묘사하였다. 그다음 그의 출현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는바 삼국정세에 대한 명철한 분석으로 류비집단의 전략을 제시해주는 군사가로서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작가는 사마의가 가정싸움에 출현하는 장면을 품을 들어 묘사하였다. 조조의 맏아들인 조비는 죽으면서 자기 아들인 조예를 사마의에게 부탁한다. 사마의가 조예의 총애를 받게 되자 제갈량은 사마의를 제일 큰 우환거리로 본다. 제갈량은 반간계(적간첩을 역이용하는 계책)를 써서 사마의가 철직되어 고향으로 쫓겨가게 한다. 제갈량이 처음 기산으로 출병했을 때 누구도 그를 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예가 사마의를 또다시 등용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대경실색한다. 제갈량의 이러한 감정변화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사마의의 재능을 과장의 수법으로 보여주었다. 사마의는 등장하자마자 벼락같은 기세로 맹달의 반란을 진압하여 제갈량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과장으로 하여 사마의라는 인물은 독자의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특정한 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심리와 정신상태를 아주 생동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관우가 술잔에 따끈한 술을 부어놓고 싸움에 나가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을 베고 돌아오는 장면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처음에 관우의 부하장수 몇명이 화웅에게 목이 잘리우게 함으로써 화웅을 기세등등하게 만들어 특정한 형세를 조성시킨다. 또 관우는 자기에 대한 원소, 조조의 대립되는 태도로 하여 불리한 정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관우가 승리를 거둘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독자들의 걱정거리로 된다. 그다음은 싸움상황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고 모든것을 청각적으로 묘사하였는바 나중에 관우가 화웅의 머리를 땅에 내던지면서 《술이 아직 따끈하군.》라고 말하는것으로 형상하여 생동한 필치로 그의 용맹한 기상을 특색있게 그려내었다.

작품의 예술적특징은 둘째로, 전쟁에 대한 묘사를 특색있게 한것이다.

전쟁에 대한 묘사는 《삼국연의》가 높은 예술적감화력을 지닌 작품으로 되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삼국연의》에는 관도싸움, 적벽싸움, 효정싸움을 비롯한 중요한 싸움들과 복양싸움, 가정싸움을 비롯한 40여차의 크고작은 격렬한 싸움들이 묘사되어있다. 이처럼 《삼국연의》는 삼국시대의 전쟁사라고도 말할수 있으며 중국군사물주제문학의 시조로, 전형으로 되는 작품이다.

《삼국연의》의 전쟁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그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전쟁묘사에서 지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혜와 용맹을 결합시킨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묘사한 작품들은 대체로 다 전장에서 창과 검을 번뜩이며 필사적으로 싸우는 무력의 대결에 치우치지만 《삼국연의》는 지략을 기본으로 하여 전쟁에 대한 묘사를 주었다. 이것은 대체로 전략과 전술의 활용, 지략과 용맹의 대결을 결합시키고 지략을 기본으로 하여 전략전술의 활용에 대한 묘사에 힘을 넣은데서 표현된다.

전략의 정확성여부는 전쟁의 전반적국면과 관계되는것이며 전술활용의 적합성여부는 국부적성격을 띠게 된다. 《삼국연의》는 전략과 전술의 활용, 전반적국면과 국부적국면을 결합시켜놓았다. 하여 전쟁에 대한 묘사가 단순한 승부기록처럼 단조로운것이 아니라 다채롭고 풍부하면서도 심오하다. 적벽싸움은 제일 특색있는 실례로 된다. 9회분으로 형성한 적벽싸움에서 앞의 3회분은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묘사이다. 강대한 무력을 가진 조조의 위협밑에 제갈량은 동오와 동맹을 맺기 위해 하구와 채상사이를 질주하면서 정세를 분석하고 서로의 갈등을 리용하여 동맹군을 쟁취한다. 손권집단의 내부에서는 전략결정에 대한 치열한 론쟁이 벌어지며 주전파와 화친파가 각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것으로 하여 싸움이나 화친이나 하는 선택에서 손권은 선풫 결심을 내리지 못한다. 손권은 주유와 로숙의 지지밑에 결사전을 맹세하고 조조와의 싸움에 나선다. 전반적인 전략채택과정에 대한 묘사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기복을 띠고있으며 변화가 다단하다. 전쟁진행과정에서도 손권과 류비연합군의 내적모순과 갈등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가는 전쟁묘사에서 지혜와 용맹성을 적절하게 결합시켰다. 류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전술을 정확히 활용함으로써 역경을 순경으로 전변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작가는 조조군대가 수군싸움에 능하지 못하다는것을 실마리로 틀어쥐고 손권과 류비연합군이 자기의 장점과 적군의 약점을 리용하여 불리한 정세속에서도 우세를 차지하는 과정 그리고 조조군대가 처음에는 우세를 차지하고 어떻게 하나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썼으나 끝내 실패하고마는 과정을 설득력있게 묘사하였다. 주유는 장간일행을 리용하여 리간술책을 씌으로써 수군싸움에 능한 채모와 장운을 제거한다. 방통이 련환계(배를 서로 련결하는 계책)를 내놓아 수군싸움에 능하지 못한 조조군의 우려는 잠시 해소되나 련합군은 묘하게도 화공준비를 갖춘다. 황개가 교육계(적측의 신용을 얻기 위해 자기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계책)를 내놓아 수군싸움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화공전법을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중국소설사에 전쟁에 대하여 이처럼 풍부하고 박력있으며 흥미진진하고 감화력있게 묘사한 작품은 그때까지 없었다.

그 특징은 다음으로 전쟁묘사에서 립체감을 살린것이다.

그것은 우선 작품에서 삼국시기의 모든 중대한 작전들과 유명한 싸움들을 전면적으로 묘사한데서 표현된다. 작품에서는 규모가 방대한 싸움들과 작은 싸움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작품은 작전의 립체적인 형상과 싸움의 세부묘사장면들 즉 화공과 수공을 리용한 싸움, 매복전과 성포위전, 군함들의 교전과 룡지에서의 백병전, 전차전과 기마전, 심지어 맨손격투에 이르기까지 중세전쟁의 모든 형식을 다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전쟁의 규모가 방대하고 그 차수도 많으며 형식이 완벽한것은 세계문학사에서 보기 드문것이다.

그것은 또한 중세전쟁의 복잡성과 규모,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형상한것이다. 작품에서는 아주 기백있게 직접적으로 조조와 손권, 류비를 전쟁의 최고통수로, 제갈량, 주유 등을 전선총지휘로,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장료, 서황, 감녕, 주태 등 수십명을 대장군으로 내세우고 수백명의 장수들과 사병들을 묘사함으로써 중세전쟁의 복잡성과 규모, 형식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최고통수에 대한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전쟁의 전

반적국면과 전략전술의 활용, 승패의 원인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게 하였다. 전쟁을 립체적으로 반영하고 최고통수와 총지휘들에 대하여 묘사한것은 전쟁에 대한 묘사의 귀중한 경험이며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중국군사물주제문학창작의 본보기로 되었다.

그것은 또한 전쟁묘사가 풍부하면서도 비판복적인것이다.

《삼국연의》는 40여차의 싸움을 묘사하였지만 서로 비슷한 감은 하나도 없으며 매 싸움이 다 자기의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적벽싸움과 효정싸움은 비슷한것 같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있다. 모종강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조조가 적벽싸움에서 자고자대한것이나 류비가 효정싸움에서 분개한것이나 같고같다. 자고자대해도 패하고 분노해도 패하기마련이다.》 조조와 류비의 서로 다른 처지와 성격으로 하여 조조는 교만해져서 대의를 잊은 나머지 패하였고 류비는 분노한 나머지 리성을 잃어 참패를 당하였다. 이것은 두차례의 싸움을 서로 특색있게 묘사한 점이다.

그것은 또한 전쟁묘사를 실재한 사실에 근거하여 전쟁을 간략화, 도식화하지 않은것이다. 작가는 도식과 틀에서 벗어나 사실과 생활에 근거하여 복잡한 전쟁의 상황을 묘사해냈다. 작가는 일부 중세소설에서처럼 천하무적이고 백전백승하는 영웅호걸들을 내세우지 않았다. 작품에서는 모든 일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제갈량도 가정싸움에서 패하는것으로 그리였으며 무적의 장수인 관우도 한갓 비장인 마충에게 생포당하는것으로 묘사하였다. 전체적인 전쟁과정에서도 승자측이 일부 실책을 범하나 항상 크게 승리하는 반면에 패자측은 부분적으로는 승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참패를 당하는것으로 묘사하였다.

작품에는 방덕이 관을 들고 결사전을 하는것과 하후돈이 눈에 박힌 화살을 뽑고 눈알을 먹는것과 같은 인상깊은 장면도 있고 제갈량이 서성에서 거문고를 타서 중달을 격퇴하는 장면도 있다. 가렬한 싸움중에는 장간이 간계에 걸리는 희극도 있으며 방통이 야밤에 한가하게 책을 읽는 장면도 있다. 이런 신축성있는 묘사는 전쟁과정을 더욱 풍부하고 이채로우면서도 실감있게 그려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3. 결 론

력사연의소설 《삼국연의》는 이와 같이 새로운 소설형식을 창조하고 예술적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중국문학사상 처음으로 군사물주제소설문학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삼국연의》는 적지 않은 제한성도 발로시켰다.

제한성은 주제사상적측면에서 볼 때 우선 류비를 어진 임금으로 내세우고 한나라황실을 떠받드는것을 비롯하여 봉건적충군사상을 설교한것이다.

작품에서는 농민봉기군을 《도적》으로 묘사하였으며 그를 진압하는데서 공로를 세운 류비를 찬양의 대상으로 내세웠다.

제한성은 예술적측면에서 볼 때 주요하게는 인물성격이 단순하고 평면적이며 변화발전이 적은것이다. 작가는 인물과 환경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인물성격을 충분한 근거가 없이 형상하였다. 상층인물들인 임금이나 장수, 재상들에 대한 인물형상은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하층인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그리였다.

작품에는 중세기적인 묘사수법들이 많이 쓰이였다. 그것은 제갈량이 죽을 때의 미신적인 이야기와 전국새에 대한 이야기, 목마로 량곡을 나르는 이야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술언어도 반백화문, 반문언문이다나니 리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인물들의 언어를 개성화하는데 지장을 주었다.

작품의 이러한 제한성은 작가가 봉건문인출신인것으로 인한 시대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이다.

또한 작가가 작품창작에서 생활적바탕이 부족한 력사자료에 많이 의거한데도 작품의 제한성의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성은 있으나 장회체력사연의소설 《삼국연의》는 삼국시대의 복잡한 사회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고 군벌전쟁의 죄악을 폭로비판하였을뿐아니라 중국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장편소설형식을 개척한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가 큰 작품이다.

우리는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외국문학작품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주고 외국문학연구의 과학리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중국문학, 장회체소설, 력사연의